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6(목) / 총 2매(본문1)
담당 부서	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(지원정책과)	담당자	• 과장 서정호, 사무관 권오혁 • ☎ (044)201-4482, 448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광주전남 혁신도시 10명중 4명꼴 나홀로 이주” 보도 관련

□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,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주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가족동반 이주율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.

○ 그 간 주택, 학교, 공공시설 등 공공이 주도하는 1차적 정주시설은 문제가 없으나* 교육·의료·문화·교통 등 민간수요에 영향을 받는 복지 인프라는 수도권 등 기대수준에 미흡한 상태입니다.

* 공동주택 8.9만호 계획 중 6.5만호(72.9%),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25개 계획 중 24개 공급(96%)

○ 또한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 맞벌이, 대학교·고등학교 자녀 전학문제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

-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가족동반이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

*(가족동반자/이주인원) : 26.9%(‘15.12월) → 30.6% (16.12월) → 33.5%(‘17.9월)

*(가족동반자+미혼·독신자/이주인원) 48.5%(‘15.12월)→52.7%(16.12월)→ 58%(‘17.9월)

□ 앞으로 정부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한 배우자 이주 지원, 지역융화프로그램, 문화·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

< 관련 보도내용(세계일보), 10.26 >

◆ 광주·전남 혁신도시 10명중 4명꼴 나홀로 이주”

-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주직원 6,329명중 가족동반이주자는 2,238명이고, 독신 및 미혼인직원은 1,372명수준
- 나홀로 이주가 많은데는 교육환경, 편의·의료 서비스, 여가활동 등 정주환경이 취약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권오혁 사무관(☎ 044-201-44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